

신안산대 동물보건과 동물보호센터서 자원봉사 실시

✎ 김명집 기자 | ⌚ 승인 2023.12.06 09:52

신안산대 동물보건과 학술 및 봉사 동아리인 “어울림”은 12월 2일 시흥시 동물누리보호센터에서 동물보건과 학과장인 윤소라 교수 지도하에 자원봉사를 실시하였다.



시흥시 동물누리보호센터는 관내에서 발생한 유기동물의 구조, 보호 및 관리를 하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시흥시 직영 동물보호센터이다.

이와 더불어 동물누리보호센터에서는 유실 또는 유기동물에게 잃어버린 가족을 찾아주거나, 새로운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분양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신안산대 동물보건과의 학술 및 봉사동아리인 어울림에서는 “생명존중감을 기본으로 역량있는 동물보건사 양성”이라는 신안산대 동물보건과 인재상에 맞추어 동물누리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보호동 청소를 실시하고 보호중인 동물의 산책 봉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하여 살아 있는 모든 동물에 대한 생명존중감을 신안산대 동물보건과 학생이 모두 인식하고, 버려지는 유기견이나 유기묘의 개체수가 줄어들기를 바란다고 신안산대 동물보건과 학과장 윤소라 교수는 말했다.



김명집 기자 dhtoday@naver.com

저작권자 © 대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